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0.15~2015.10.22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정신과 의사의 책으로 보는 새시대와 왜불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2	공경할만한출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강스님	민족사	7	신심명(물록깨달음의노래)	해국스님	모과나무
3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8	이야기를담은사찰법사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4	신묘정구대다라니기도법	유관스님,김현종,효림		9	인생의약상자	마스,원성명	담앤북스
5	조용현의 휴휴명당	조용현	불광출판사	10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 “차는 우주를 소통하는 이상적인 정신 음료”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박동춘의 한국차 문화사

박동춘 지음  
동아시아 펴냄  
1만 8천원

우리나라 차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국 전통차 초기 역사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나 선종의 불교문화를 통해 독자적으로 성장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차가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시기를 섣달여왕때로 본다. 당나라를 다녀온 김대립이란 인물이 차 씨앗을 들여온 것이다. 이때부터 차는 불교 및 승려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 차는 이후 부처님을 위한 공양물로서 사용됐다.

고려시대가 되면서 차 문화는 부흥기를 맞게 된다. 왕실의 주도로 차 문화를 확산시킨 것은 불교의 역할이 컸다. 고려 초, 왕실이 주관하는 의례에 차가 올려졌고, 귀족층 또한 '고급문화'로써 차를 향유했다. 이런 고급문화인 차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불교의 힘이었다. 당시 고려의 사상세계를 지배한 불교계와 교류한 문인들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차문화는 척불송유가 대두된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쇠퇴기를 맞는다. 그리고 조용히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스님들과 교류하는 문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지속된다. 벼슬길에서 벗어나 은자의 삶에 들면서 자연과의 합일을 노래하는 문인들의 안빈낙도 정신과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차 문화가 일맥상통해 어우러지게

### 茶人과 茶詩 통해 본 <한국차 문화사>

이 책은 '차'로 애환을 풀고, '차'로 왕을 꾸짖고, '차'로 몸 건강을 다스렸으며, '차'로 사랑을 만나고, '차'로 글을 지었던 한국사 인물들을 통해 100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다.

- 고려 왕실 폐단을 꾸짖는 고려의 최승로 '시무28조'에서 최승로는 '공덕재'라고 하는 불교 의례에서 왕이 직접 차를 갈아 마시는 의식을 하는 것을 '폐단'이라고 지적한다. 백성의 고행로 차가 거두어져서 행해지는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초의차 5대 계승자인 박동춘 소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동춘차'를 매년 만든다. 사진은 차를 뒤는 박소장

### 한국전통차의 원형 상세히 밝혀내

### 고려, 왕실이 선도한 차문화 융성기

### 조선때 척불송유와 차 풍속 스러져

된 것이다. 당시 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의 독특한 문화였지만 이들과 어울리는 문인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정약응은 아암 해장 등 만덕사의 승려들에게 주역, 시문 등을 가르쳤고, 그 보답으로 차를 받았다. 김정희 또한 만해 스님에게 차를 구하기 위해 '희중만해'라는 시를 써서 보냈다. 이후 만해 스님이 어려워했던 불교 교리를 해석해주고 난 뒤 보시로 차를 받기도 했는데, 다른 승려들에게 추사체 작품을 많이 써주었다고 한다. '기대(記茶)'를 저술하여 차의 실용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것은 농업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변화되는 시기에 대두된 차의 실용안이라는 것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신간 <박동춘의 한국차 문화사>을 펴낸 저자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은 30여년간 전통차 계승을 위해 앞장서온 차의 장인이자 달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한국 '전통차'의 원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저자는 차를 직접 만들고 마시며, 심신을 수련하는 구도자로서, 그리고 차 이론과 역사 연구자로서 30여 년을 살아왔다. 이는 그가 30여 년 전에 만난 응송 스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응송 스님은 책의 마지막 24번째 쪽지에 소개된 다인(茶人)이다. 한국 전통차의 성인이라 불리는 초의 선사의 법통을 이은 응송 스님을 저자는 1979년, 해남 백화사에서 만났다. 당시 한학을 공부하던 26세 청년 박동춘과 86세의 노승 응송은 <동다정통고> 출판을 도우면서 인연을 맺었다. 책의 서문서 응송 스님은 자신이 경험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제자 박동춘에게 전한다는 글을 남겼고, 그에게 <다도전

### - 광자의 몸짓으로 세상 등진 김시습

단종 폐위에 자신의 책을 모두 불사르고 사흘 밤낮을 울었다는 김시습은 기행을 일삼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25편이 넘는 다시(茶詩) 속에 담긴 그의 속내는 소박하고 정직한 선비의 모습 그 자체뿐이다. 광자의 모습 일색이었던 역사의 기록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 - 약학계범의 허백당 성헌

문장과 음악에 능통했던 풍류객이었지만 혼란한 시절을 살았던 허백당 성헌. 그가 살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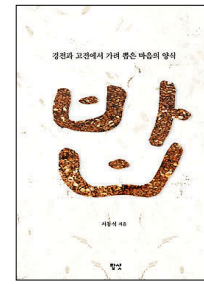
시대를 달리 그가 남긴 「행화소영」을 보면 고요함 속의 꺾다의 즐거움이 담겨 있다.

대한 책에선 최치원, 최승로, 추사도 있지만 이색 정몽주 김종직 김시습 정약응을 다인으로 불러내고 있다. 40여 편의 다시와 24명의 다인들의 전기(열전)를 통해 오랫동안 형성된 한국 전통차 문화의 원형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대한 책에선 최치원, 최승로, 추사도 있지만 이색 정몽주 김종직 김시습 정약응을 다인으로 불러내고 있다. 40여 편의 다시와 24명의 다인들의 전기(열전)를 통해 오랫동안 형성된 한국 전통차 문화의 원형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대한 책에선 최치원, 최승로, 추사도 있지만 이색 정몽주 김종직 김시습 정약응을 다인으로 불러내고 있다. 40여 편의 다시와 24명의 다인들의 전기(열전)를 통해 오랫동안 형성된 한국 전통차 문화의 원형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 참다운 인생위해선 세상 근본 원리 이해를



반  
서동석 지음  
팍스 펴냄  
1만 3천원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얻는 것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잃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양면에서 동시에 바라보고 손익을 헤아려야 목표를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하면 결국 목표하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전한 시대에 회남자(淮南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름을 쫓는 자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작은 이익을 문 제 삼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크게 경계해야 할 때도 있지요.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들 중에서 월(越)나라 대부 범려의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 20여 년간 유불도 사상 연구한 저자의 인생 지침서

고려시대 <에머슨의 중립성 연구>의 삶의 양극적 모순에 관한 생태적 통찰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10여 년간 서남대서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후 대학을 나와 수행을 연구했다. 에머슨의 중심 사상인 조화와 균형이 수행의 핵심원리인 중도와 통하고, 무엇보다 에머슨이 추구하는 진실한 삶이 인간사 모든 경영의 최고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동서양을 아우르는 중도의 방법으로 고전 인문, 균형 학습, 건강 등 인생학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20여 년간 '탈트 윌도 에머슨'과 '유불도(儒佛道)' 사상을 연구해온 서동석 박사가 전하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동서양의 경전과 고전에서 뽑아낸 55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준다. 세상에는 행복과 성공에 관한 방법론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삶의 현실은 모순과 갈등의 연속이라 어느 특정 방법론에 딱 들어맞을 수 없으며, 따라서 건강이든 성공이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유동적인 삶의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 모든 경전과 고전의 기본 메시지는 동일하다

인간의 삶은 진리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 삶 속에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 모든 종교와 학문의 이상이다. 그 진리가 바로 중도이다. 예수님의 황금률도 중도이고, 공자님, 노자님, 부처님의 가르침도 중도이다. 언어의 형식적 표현을 넘어 그 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본다면 모든 종교와 학문의 중도적 본질을 볼 수 있다.

### 경전과 고전에는 삶의 진리에 대한 해답이 있어

혹자는 <논어>와 <맹자>를 반드시 읽으라고 한다. 일생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불경>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 혹자는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고전을 읽으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경전과 고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책은 그런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수많은 고전과 경전에서 우리에게 바른 지침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만을 골라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지혜의 보고(寶庫)에서 마음의 양식을 취하다보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진리에 이르는 황금률을 찾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 거 제 멸 치

청정지부

거제, 가조도, 섬마을은 계절에 따라 멸치, 멍게, 굴, 대구, 수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주문 즉시 택배로 신선함을 확인하실 수 있게 약속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주문 환영  
바자회 용 멸치, 특상품 취급

※ 가격은 수산물이라 시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멸치 1박스 1.5kg

• 종류 : 참멸치, 볶음용 멸치, 다신멸치, 청어멸치는 2월경 부터 취급 (택배는 멸치 5박스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폰득폰득 멸치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경희수산(주) 대표 (두손모음)

##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계,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흥익이념으로 같이 불사 지어갈까 여 법한도량 인연 원하며 비구 비구니 거사 보살님 등께서 운영하시는 사암모두 상관하지 않습니다.

경남 양산시 삼호로 74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전화 010-3854-8107.055)388-3878

## 松 根 油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분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썩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